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대한 논평

백 경 임

(동국대학교)

발표에서는 불교에서의 여성관을 경전에 의거하여 심도있게 설파하였으며 인도, 중국,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적 여성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경전 속에 보이는 남녀 불평등 사상의 경우에도 그 역사적 상황에서 석존의 진의(眞意)와 불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하였다.

석존이 여성을 성불할 수 있는 도기(道器)로 보았다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남녀 평등사상을 부각시키면서, 남녀 불평등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비구니 팔경법이 석존이 설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하였다. 비구니 팔경법은 지금까지도 승단과 불자들에게 남녀 불평등의 근거로 작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전과 율전의 근거들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부파불교 시대에 등장하는 사상인 “여자 몸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오장설(五障說)의 근거를 32묘상을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 석존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 남녀 평등사상에 장애가 되어 부처님의 근본적인 평등사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부처님의 근본사상에 비추어 봄으로써,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중기 대승경전인 승만경을 불교적 여성관의 중요한 자료로 들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승만부인을 이상적인 불교의 여인상으로 보았다. 본 토론자는 불교에서의 여성관을 나타내는 대표적 자료로서 유마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마경의

관중생품에 나오는 천녀와 사리불의 대화는 남녀평등의 차원을 넘어서서 남녀평등의 궁극적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천녀는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여자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설한다. “사리불이 여자가 아니면서 여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여자도 이와같이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고 하셨다.”라고 사자후(獅子吼) 한다. 대승불교의 공(空) 사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 관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상이라 하겠다. 우리의 본래면목에는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이 없이 똑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찌보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면에서의 자아 정체감(ego identity)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 사상에 근거하여 주체와 객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개념이다. 불교의 진정한 평등세계에서는 “나”에 대한 상(相)을 없애고 “나”에 대한 집착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자 하기 때문에 또 실체를 상(相)으로써 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사상이다. 변성성불론은 물론 남녀평등이라는 개념까지도 뛰어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교도가 추구해야 할 남녀 평등사상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닌가 한다.

이 사상은 오늘날 학계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양성성(Androgyny)의 개념과도 비교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양성성이란 인간은 심리적으로 한 개체 안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서는 남성은 남성성을, 여성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양성성으로의 사회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능적이라고 보고 있다(유영주 외, 1996; 임정빈 외, 1997).

어쨌든, 유마경에서의 공(空)사상에 입각한 남녀 평등관은 깨달음을 얻은 상황에서의 남성·여성관인 만큼, 지금 종단적 차원에서 전개해 오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한국 교수 불자 연합회, 1996)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또한 발표자는 여성 불자들의 삶에서 불교가 사회교육적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때 필요한 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하나는 불교내에서 여성 불자의 위상, 즉 신앙 형태와 성차별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여성 불자의 입지에 대한 것이다.

토론자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도 그 광범위한 일들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본 토론자는 종교의 교리와 신도들의 현실적 행동의 괴리를 큰 문제점으로 주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의 경우를 보면 그 종교적 교리는 다른 종교의 추종을 불허하지만(백경임, 1985: 113-133; 목정배, 1995: 197-217) 살상 행위로 볼 수 있는 인공 임신중절에 관한 통계치(심영희, 1991: 90-98)를 보면 종교별 낙태 경험에 있어 불교도의 경우가 오히려 타종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아연할 뿐이다.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은 불교도의 거의 대부분이 믿고 있는데에도 그들의 “자존감” 수치는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백경임, 미발표 논문). 도덕성의 문제 또한 다른 종교를 포함하여 종교인이 더 도덕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부처님의 논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행 태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사회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번 학회가 종교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측면에서 고찰되었으면, 다음 기회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지어 탐구되기를 바란다. 발표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되기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 목정배(1995). 계율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 **한국불교학 제20권**. 한국불교학회.
 백경임(1985). 불전의 태아관. 한국불교학회.
 백경임(미발표).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의 종교와 자존감과의 관계.
 심영희(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임정빈·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한국불자교수연합회(1996). 깨달음의 사회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제6회 한·일 불교 학술대회.